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문 대통령-김 위원장, 평양서도 이어진 파격

사상 첫 생중계... 같은차량 동승 카퍼레이드 눈길 김 위원장 "수준 낮을 수 있어도 성의 다해 준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번째 만남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 부부는 공항에 직접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 두 정상은 오픈 카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고 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로 초대해 첫 정상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을 태운 공군1호기는 18일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모습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됐다.

두 정상은 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할 때는 함께 무개차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외국 정상과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한 차례가 유일하다. 평양 시내를 이동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 주민의 환영에 손을 흔들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함께 한 뒤 "비록 수준은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다 해서 준비한 숙소와 일정이나 우리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최고의 영접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숙소로 이용했던 영빈관은 북한이 국빈급 사절단을 맞이할 때 제공하는 장소다.

이날 오후 3시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곳이다. 당 대회·전원회의 등 주요회의의 개최 장소이기도 하다. 2007년 평양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 일부는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에 전파됐다. 이날도 평양 현지 모습이 방송을 통해 가깝게 전달되기도 해 이목을 끌었다.

순안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북한 주민들이 대

기하는 모습, 의장대 사열을 준비하는 북한 군인들, 공항 환영식을 꼼꼼히 챙기며 동분서주하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공항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 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김 위원장과 함께 걸어가다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운행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남북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많았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 상회담을 연 것, 그리고 김 위원장 부부의 공항 영접은 외국 정상 사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대"라고 강조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부미원기자 bu8385@ihalla.com

방북 첫날부터 회담... DJ·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날인 18일 곧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200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았으나, 당시 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방북 둘째 날 열렸다.

문 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이르는 장면까지 주요 일정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점도 과거와 사뭇 다른 부분이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평양 순안공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가 영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8년 전인 200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는 장면을 연상시켰다.

양 정상은 세 차례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어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이 장면은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의 첫 만남 때를 연상시켰다. 당시 특별기에서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순안공항에 모인 환영 인파들이 붉은색 조화를 흔들며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반기는 모습도 유사했다. 다만 이번에 문 대통령을 맞는 평양 시민들의 손에는, 과거엔 없었던 인공기와 한반도기도 들었다.

▶노 전 대통령 이어 문대통령 두번째 퍼레이드... 김정은 첫 동행 눈길=이날 문 대통령이 순안공항을 벗어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2007년 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했다.

다만 2007년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무개차에 동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탑승, 평양 시내에서 퍼레이드에 나섰다.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극진한 예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순안공항서 첫 만남... 2000년 DJ 때와 비슷=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문 대통령을 공항 활주로에 직접 나와 맞았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전용기 트랩 앞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대기하다 트랩을 내리던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반갑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3번째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위부터 2000년 6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文 "김위원장 결단에 사의"... 金 "진전된 결과 예상"

평양 방문 첫날 정상회담 "평화·변영 결실 보여줬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다섯달 만에 세 번을 만났는데 돌아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고 있고, 저야 할 무게를 짊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000만 겨레에 한가

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 시민의 열렬한 환대, 기대 이상의환대에 감사드립니다"며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 놀랐다.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

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으로 북한 관계와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면서 "역사적 조미대화 상봉의 불씨가 문대통령에게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중 첫번째로 이뤄진 이날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오후 3시 45분에 시작됐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

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38분에 노동당 본부청사에 도착해 대기중이던 김 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했다.

도열한 인민군 사이를 지나 김 위원장과 로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대담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8명의 노동당 부위원장과 일일이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한 후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9.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서 서서 이를 지켜봤고 방명록 작성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남북 정상은 계단을 통해 2층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노동당 본부청사가 남측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

후대용 가스레인지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후대용 가스레인지로 조리 중에 부탄렌을 화기 가까이 두거나 기열하는 것은 폭발사고의 원인!

후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과대불편이나 알류미늄 포일은 사용 금지!

행동시 헛된 안전에서 가스노출 등 가스유출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한 노사문화·경제활력 도모를 위한 2018년 노·사·시민 한마음 마라톤대회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사시민의 범시민적 화합과 단결의 정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재주를 조성하고자 함.

일시: 2018. 11. 3(토) 09:00~12:00
개회식: 09:00 - 출발시간: 10km 09:30분, 5km 09:35분

장소: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옆 광장

대회종목: 5km, 10km (건 타인 출정-원 없음)

참가비: 5,000원(입금자명은 참가신청서 성명 및 단체명과 동일하게 입금요함)

참가신청: 2018. 9. 17(월) ~ 10. 12(금)

접수처: ▶방문 및 FAX접수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753-0003, FAX 757-8246) - 제주시청 경제입지과 (☎728-2792, FAX 728-2799) - 참가신청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홈페이지(http://jinochong.org)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참여복지지원 홈페이지(http://jwc.org)

지급목록: 기념티셔츠, 안내책자, 음료 외 푸짐한 경품

시상: 청년부(50세미만), 장년부(50세이상) 구분상 시상

종목	순위	시상품
5km	남자 1~5위(청·장년부)	제주사랑 상품권 (총 40명)
	여자 1~5위(청·장년부)	
10km	남자 1~5위(청·장년부)	
	여자 1~5위(청·장년부)	

※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 제공 (경품 추첨은 사전에 배부된 배번호로 추첨함으로, 대회시 필히 배번호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제주도,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주관: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자총협회, 제주도육상연맹

제54회 도평동민 한마음단합대회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단합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오니 도평동민과 고향방문을 하신분들을 초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를 하오니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 일시: 2018년 9월 25일(화) 10:00
- 장소: 도평초등학교 운동장
- 주요행사: 가족연날리기, 장맛놀이, 놀이마당 등
- 주관: 도평동 마을회
- 주최: 도평동 청년회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입금대: 도평동청년회) 9003-2347-0524-7

연락처: -회 장 임태근 010-4696-4300 -사무국장 고원석 010-2288-6630

도평동청년회 회장 임태근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사무실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